

불경(佛經)번역 방법에 관한 제언

박 윤 철
(동국대)

1. 서론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불경내용들은 현대인의 삶에 여유와 지혜를 제공해준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불경들은 어려운 한자로 구성돼 있어 그 내용과 의미들을 음미해가면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불경들은 한글로 번역하려는 시도가 많았고 온라인상에 그러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로 번역된 불경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원문 메시지를 목표 텍스트에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 자료는 많지 않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불경은 원전의 표면구조에 맞게 한국어로 직역할 것인가, 도착어 의미구조에 맞게 의역할 것인가 하는 번역방법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서윤길 3).

사실, 불경과 같은 종교서 번역은 서구의 성경번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성경번역에 관한 여러 학자들 가운데 나이다(Nida 67)는 형태적 등가성과 역동적 등가성이라는 두 가지 번역방법을 제시하였다. 형태적 등가성은 출발어의

구조나 형식에 치중하여 원문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반면에, 역동적 등가성은 반응의 등가성에 비중을 두어 자연스러움과 맥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 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문화배경의 지역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성을 띠고 있다(윌트 Wilt 152). 마찬가지로 불경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각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므로 교리나 진언(眞言)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특정한 번역방법으로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이다(67)의 형태적·역동적 등가성을 통한 통합적 번역 방법을 불경번역에서 고찰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¹⁾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반야심경(般若心經)」 일부내용을²⁾ 그 대상으로 삼았다.³⁾ 일반 문헌번역과 달리, 불경번역은 교리가 왜곡될 소지가 있어 원문에 충실한 직역형태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박경훈 77). 물론, 종교서 번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만, 난해한 한자어를 한국어로 전달하려는 과정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 본다. 사실, 불경번역은 현 시대에 맞게 신도들이 원문의 의미와 내용을 용이하게 받아들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한다(조현춘 84). 그러므로 불경번역은 신도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즐길 수 있는 번역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경번역 방법을 고찰하기에 앞서, 다음 장은 불경번역 방법의 근거를 제시할 종교서 번역에 관해 먼저 살펴보겠다.

2. 종교서 번역 접근법

번역학 분야에서 다루는 종교서 번역은 주로 성경번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중세시대 번역가들은 성경을 교리상의 이유로 원문 한 구절, 한 구절 본

- 1) 불경번역 방법에 관한 고찰은 박운철(24-25)의 「반야심경」 논문내용에도 통합적 번역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 본 논문과 유사점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반야심경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본 논문은 불경번역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 2) 동국대학교 정각원의 『법요집(2001)』 속에 「반야심경」을 분석 자료로 선택하였음.
- 3)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야심경」내용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내용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불경번역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므로 부족하나마 본래의 취지를 밝힐 수 있으리라 믿는다.

래 의미에 충실히 번역하였다. 그리고 교리전파와 계몽을 위해 성경은 여러 소수민족들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Peter Kirk 90). 그리하여 소수민족 사람들은 고유한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계몽시대 성경번역은 폐쇄번역(literal translation)과 자유번역(free translation)으로 각색되어 전달하였다. 특히, 서구교회에서는 성경의 본질적 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폐쇄번역을 권장하였다(나이더 14-15).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성경번역은 필립(J. B. Phillip)이나 나이더(67)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번역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이더(67-8)는 성경번역에 역동적 등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그러한 개념은 여러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형식과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동적 등가는 존 비크만(John Beekman), 존 카로우(John Callow), 돈 카슨(Don Carson)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의미기반 번역(meaning-based translation)으로서 지지를 받았다(피터 켈크 91). 사실, 역동적 등가라는 표현은 기능적 등가라는 의미와 유사하다. 기능적 등가는 텍스트가 가진 특정 맥락상황에 적용되는 기능적 측면에서 번역과 원천 텍스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John Lyon 34).

그러므로 역동적 등가는 기능적 등가처럼 번역이 독자와 의사소통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나이더와 테이브(Nida & Taber 1)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번역가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번역된 메시지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다... 정확성은 특정 번역물이 의도하는 평균적인 독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What one must determine is the response of the receptor to the translated message... Correctness must be determined by the extent to which the average reader for which a translation is intended will be likely to understand it correctly)

위 언급처럼 번역은 독자들의 반응과 함께 의사소통되도록 의도된다는 것이다. 역동적 등가번역은 똑같은 메시지가 다른 언어, 다른 문화맥락에서 독자들에게 바르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번역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확성: 번역가는 원문 메시지 의미를 번역하는 언어로 최대한 정확하게 재-표현해야 한다.

명료성: 번역은 명료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번역가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표로 삼고 있다.

자연스러움: 번역은 '이국적'으로 느껴져서 안 된다. 번역은 또한 전혀 번역처럼 느껴져서도 안 되지만, 자연스러운 일상적 방식으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번역되어야 한다.

(Accurate: the translator must re-express the meaning of the original message as exactly as possible in the language into which he is translating.

Clear: the translation should be clear and understandable. The translator aims to communicate the message in a way that people can readily understand.

Natural: a translation should not sound 'foreign'. It should not sound like a translation at all, but like someone speaking in the natural, everyday way.)

(Katharine Bernwell 23)

위에서 언급하듯이 정확성은 형태적 자질측면에서 거론되지만, 의미적 측면에서도 요구된다. 정확성은 원문에 내포된 의미를 도착어로 동등하거나 유사 의미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재배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확성의 속성과 함께 명료성은 독자들에게 지식이나 정보 등을 용이하게 수용하도록 명확한 표현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명료성은 독자입장에서 원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움은 등가번역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도착어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그 문화의 양식이나 의미에 맞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연스러움은 독자들이 번역된 표현이나 구조를 이국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재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번역은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에서 발생한 것처럼 옮겨 놓기 힘들다. 특히, 성경번역처럼 몇 천년 전의 문화와 내용을 현재 문화와 의미로 변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교서 번역은 그 자체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원문의 의미와 내용 등을 시대에 맞게 각색

또는 언어적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나이다(137)의 성경원문에 나와 있는 ‘하느님의 어린 양(lamb of god)’을 그러한 예로 설명하였다. 만약 전도사가 이러한 표현을 북극 에스키모인들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들은 이러한 표현들을 인지하지 못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에스키모인들은 한 번도 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원문에 ‘양(lamb)’이라는 어휘가 있을 지라도 번역가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맞게 ‘하느님의 물개(seal of god)’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번역이 될 수 있다.⁴⁾ 그러므로 성경번역은 교리와 진리를 전파하는 과정에 그 본질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등가번역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불경번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을 경유하여 전래받은 대승불교와 직접 불교를 전래받은 소승불교로 나눌 수 있다. 주류를 이루는 대승불교 경전들은 중국어로 번역된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음사어로 음역한 용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경전이나 팔리어(Pāli) 경전의 원음에 가깝게 중국어 한자음을 다시 한글로 음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경전일부는 산스크리트어나 중국어도 아닌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다(안형관·전영숙 61).⁵⁾ 불교경전은 도안(道安)의 오실본삼불역(五失本三不易)⁶⁾이나 현장(玄奘)의 오종불번(五種不翻)⁷⁾이라 하여 임의로 범문을 변경하거나 훼손해서

-
- 4) 몇몇 학자들은 ‘하느님의 어린 양(lamb of god)’을 ‘하느님의 물개(seal of god)’로 변환한 것에 비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교통수단과 매스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서 그들은 충분히 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반야심경 에 ‘아누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로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한자어 표기로 볼 때, ‘아누다라삼막삼보제’로 읽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산스크리트어를 한자어로 원음에 가깝게 음사어로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본다(안형관·전영숙 61).
 - 6) 오실본(五失本)이라 함은 i) 범문과 번역문의 어순이 반대이므로 어순변경 문제가 있다. ii) 범어경전은 질(質)을 받드나 중국인들은 문(文)을 좋아하므로 대중의 마음에 맞게 번역하면 본래의 질박함을 잃을 우려가 있다. iii) 범본은 반복이 많으나 번역의 경우에 그것이 적당한 재량 때문에 없어진다. iv) 범본은 번잡스럽게 느껴지는 설명문이 많아 한역할 때 그것이 대량으로 삭제되어 없어진다. v) 범본은 단락이 바뀔 때마다 앞에서 서술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데 번역에서는 이를 제거한다(서윤길 3, 박경훈 175)
 - 7) 오종불번(五種不翻)은 i) 다라니와 같은 비밀스러운 말은 번역하지 않는다. ii) 여러

안 된다고 금기하였다(서운길 3; 박경훈 175). 경전번역에 있어 이러한 금기사항들은 다시 말해, 직역은 허용되지만, 등가번역처럼 의미 기반 번역은 허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한글과 뜻글자인 중국 한자어 사이에는 언어자질, 언어구조 차이가 있다. 경전의 참 뜻을 알지 못한 채, 음사어로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존의 다른 학자들도⁸⁾ 주장하였듯이, 불교경전은 교의 전파를 위한 새로운 번역 접근법이 필요하다. 최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을 한글로 번역한 것은 뜻있는 작업이라고 본다.⁹⁾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 혹은 「반야심경(般若心經)」의 한글 번역본을 분석하기에 앞서, 불경들은 어떤 번역방법으로 원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 경전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은 의역을 추구한 내용이 많다. 그러나 경전들은 필요에 따라 직역과 의역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번역은 번역학에서 말하는 여러 번역방식들 중, 등가번역에 주목할 만하다. 등가번역은 이미 성경번역에 적용되었고, 불교경전에서도 붓다(Buddha)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불경은 교리 양식과 형식에 따라 글자 그대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도착어 문화에 맞게 의역하는 문장도 발생한다. 따라서 불경번역은 핵심의미 내에서 형태적·역동적 등가번역을 함께 진행하는 통합적 등가번역 접근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통합적 등가번역 접근법 제시에 앞서, 다음 절은 형태적·역동적 등가번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지 뜻을 가진 박가범(薄伽梵)과 같은 말은 번역하지 않는다. iii) 중국어에 없는 말은 번역하지 않는다. iv) ‘아녹다라삼막삼보리’와 같은 음사하고 번역하지 않은 선례가 있는 것은 번역하지 않는다. v) 반야(般若)를 지혜라고 번역했을 때와 같이 그 뜻이 얇고 가벼워지는 말은 번역하지 않는다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서운길 3; 박경훈 175).

8) 박경훈(1988), 서길중(2004), 조현춘(2000) 등이 주장하였음.

9)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출판한 『법요집(法要集) 2001』에 「반야심경 한글 번역본이 수록되어 있음.

3. 형태적·역동적 등가번역

번역에서 등가라는 개념은 복잡한 면을 지니고 있다. 번역등가에 관한 정의는 두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그 하나는 내용을 원어로부터 역어로 옮기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문학 텍스트에서 창조적, 예술적,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김효중 28). 등가에 대한 개념은 기능적, 의미적, 화용론적, 차등적 등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있다(김효중 29). 하지만, 등가에 대한 용어는 사실,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이 먼저 사용했으며, 출발어와 도착어의 언어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텍스트의 등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번역목표로 제시한다(김도훈 25). 따라서 번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번역유형들을 인정하지 않고 원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전통적으로 번역접근은 폐쇄번역(직역)과 자유번역(의역) 측면에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번역접근은 이분법적 번역유형보다 실제 여러 번역유형들이 존재한다. 특히, 성경번역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출발어 텍스트 내용과 의미들을 목표어 텍스트에 전달하는 번역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번역전략 가운데, 라슨(Larson 15-18)은 관용적 번역(idiomatic translation)을 구상했으며, 관용적 번역 접근법은 의미기반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역동적 등가번역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관용적 혹은 역동적 등가번역 접근법은 청중들에게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역동적 등가번역은 출발어 텍스트처럼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도착어 언어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표현된다(라슨 10; 피터 켈크 91). 그러므로 역동적 등가번역은 언어형태보다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이다와 테이브(1)는 메시지 내용은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청중임에도 불구하고 원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의사소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종교서 번역은 언어적으로 출발어 텍스트에 내포된 정보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나이다와 테이브(6)는 역동적 등가번역을 출발어 텍스트의 수용자와 상당히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어 텍스트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크만과 카로우(20)는 형식중심 번역을 거부하면서 이해의 용이함, 자연스러운 언어표현, 원문의 역동적 충실성을 강조하였다. 이러

한 관점에 비해, 구트(Gutt 32-36)는 맥락적 상황에서 함축의미를 포함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해석적 유사성을 통해 원문과 닮은 축어적 번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문과 동일한 해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자는 원문과 가까운 형태등가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나이다(59)가 주장하는 형태적 등가성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메시지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형태적 등가번역의 내용은 문법적 단위, 어휘용법의 일관성, 원문의 형태적 표시보존¹⁰⁾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형태적 등가에 대한 개념은 아래처럼 정의할 수 있다.

형태적 등가

형태적 등가는 형태와 내용 양쪽 메시지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형태적 등가는 수용언어의 메시지가 출발어의 여러 요소들을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Formal equivalence focuses attention on the message itself, in both form and content... One is concerned that the message in the receptor language should match as closely as possible the different elements in the source language.)

(Nida 159; Jeremy Munday 41)

위 정의대로 형태적 등가성은 출발어 구조와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번역의 정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형태적 등가성은 역주를 첨가하는 방식을 통해 출발어의 언어와 문화, 관습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먼데이 159; 정연일·남원준 53). 동일한 형태와 의미재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형태적 등가성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 있고, 언어형식과 구조에 더 비중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역동적 등가는 표현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수용자와 수용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 내에서 타당한 행동양식을 결부시켜 준다(먼데이 42). 그리고 역동적 등가에 대한 개념은 아래처럼 나타낼 수 있다.

10) 문법적 단위는 명사 대 명사 번역, 동사 대 동사 번역을 말하며, 어휘용법의 일관성은 모든 구문들의 본래 문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형태적 표시보존이라 함은 구두점, 단락의 분할, 들여쓰기 등을 나타낸다.

역동적 등가

수용자와 메시지 사이의 관계는 원문 수용자와 메시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와 상당히 동일해야 한다... 메시지는 수용자 언어적 필요와 문화적 기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전적으로 자연스런 표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eceptor and the message should b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at which existed between the original receptors and the message... The message has to be tailored to the receptor's linguistic needs and cultural expectation and aims at complete naturalness of expression.)

(나이다 59; 먼데이 42)

위에서 언급하듯이, 역동적 등가는 번역문의 수용 또는 반응과 동일한 효과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역동적 등가는 원문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원문 텍스트와 자연스럽게 반응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동적 등가는 수용자 중심의 접근법에 자연스런 번역을 위한 문법, 어휘, 문화적 지시물 등의 변안(adaptation)을 필수적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도착어는 출발어로부터 간섭이 드러나지 않고 이국성을 최소화시킨다(나이다 67-8).

하지만, 역동적 등가에는 원문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도착어 문화에 전이되지 않는 것들도 항상 존재한다(정연일 22). 결국, 역동적 등가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문제와 심리적 효과에 관한 주관적 해석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정연일 20).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역동적 등가 접근법은 단순히 언어구조나 자질차원을 벗어나 도착어 독자들에게 가독성을 높이는 의미 등가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이다(67)의 형태적·역동적 등가번역 방식은 언어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등가까지 포함하는 접근법을 나타낸다. 불경내용 중에 어떤 정보는 사실에 가까운 표현으로 전달해야 할 경우 형태적 등가번역을 구사하지만, 일부 내용이 도착어 관습과 문화에 거리감을 가지는 정보는 역동적 등가번역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번역접근법을 혼합한 중도방식의 통합적 번역접근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통합적 접근법

현재까지 전해지는 불경에는 여러 종류의 경전들이 있다. 일반 신도들이 잘 접하지 않는 경전들은 스님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의미와 내용을 전달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게다가, 신도들은 스님들의 설법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불경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중재자에게 달려 있다.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불경경전들이 어렵다고만 알고 있다. 비록 불경들이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을지라도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면 일반 신도들은 스님들의 설법에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불경들도 어떤 번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통합적 번역접근법은 문장의미와 내용상황에 따라 형태적 접근법을 적용할지 또는 역동적 접근법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불경내용은 주문과 같은 반복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주문과 같은 표현들은 형태적 등가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주문표현들은 운율적 리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문표현들은 원문에 나타난 음을 살려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경전의 참뜻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度一切苦厄(도일체고액)”과 같은 표현은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니라’처럼¹¹⁾ 원문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용이한 역동적 등가번역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합적 접근법은 특정한 장르의 번역전략보다 그 내용범위와 상황에 따라 그 번역 접근법을 달리할 수 있다. 원전해석에 있어 텍스트 상의 전후관계(상황)는 가시적 상징·표현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해석자의 기본자세를 지적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승석 30). 이처럼 불경번역은 목표 텍스트

11) 동국대 정각원(23)에 출판한 『법요집』에 있는 「반야심경」의 일부 내용 중,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 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조건오온개공 도일체고액)”에서 “度一切苦厄(도일체고액)” 의미는 전체 번역 내용인,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 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에서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라는 해석에 해당된다.

사례 1

ST: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 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조건오온개공 도일체고액)

TT: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 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동국대 정각원 23)

위 사례 1에서 볼 수 있듯이, 출발어 텍스트에 나타난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蜜多 時(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라는 표현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로 전달되었다. 여기서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觀自在菩薩(관자재보살)”이나 “般若波羅蜜多(반야바라밀다)” 이름은 그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명칭을 나타내고 있고, 서술어에 해당되는 “行”과 시간부사 “時” 발화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게다가,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조건오온개공 도일체고액)”라는 표현은 “다섯 가지 쌓임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로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출발어의 의미들은 원문의 심오한 의미내용을 신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번역된 표현들은 원문내용과 의미들에 대해 유사한 의미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온(五蘊)”이라는 말은 다섯 가지 모임을 의미한다. 오온은 물질적 존재인 사물, 정신적 작용인 감수(受), 상상(想), 인식의 진행(行), 분별인식(識)으로 구성된 일체의 모든 존재를 말한다(정성분 42). 이처럼 한자어로 된 “오온”이라는 원문은 심오한 의미들을 도착어 텍스트에 “다섯 가지 쌓임으로”처럼 명료하고 쉽게 전달시킨 역동적 등가번역을 보여준다.

뜻글자로 된 출발어들은 추상적, 포괄적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발어의 모든 의미들이 전달될 수 없지만, 원문과 유사한 의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도착어에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한자어를 그들의 기대수준에 맞게 원문의미들을 더욱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용이한 의미로 수용한다. 그러한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사례 2

ST: 以無所得故¹²⁾菩提薩埵 依般若波羅蜜多 故心無罣碍 無罣碍故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애고

TT: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동국대 정각원 24)

위 사례의 출발어 텍스트에 “以無所得故 菩提薩埵 依般若波羅密多 故心無罣碍 無罣碍故(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애고)”라는 표현은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로 전달되었다. 여기서 “以無所得故(이무소득고)”라는 표현은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로 해석된다. 이러한 번역은 의미적으로 출발어 텍스트와 유사한 등가효과를 발생시키는 역동적 등가번역을 보여준다. 하지만, “依般若波羅密多(의반야바라밀다)”와 같은 표현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처럼 글자 그대로의 번역을 나타낸다. 게다가, “般若波羅密多”라는 표현 역시 “반야바라밀다”로 형태적 번역을 보여준다. 사실, “般若(반야)”라는 어휘는 ‘높고 높으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般若(반야)”라는 표현은 의역하지 않고 어휘 형태 음을 그대로 반영한 형태적 등가번역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以無所得故(이무소득고),” “故心無罣碍 無罣碍故(고심무가에 무가애고)”와 같은 표현은 역동적 등가번역을 “菩提薩埵(보리살타),” 그리고 “依般若波羅密多(의반야바라밀다)” 표현은 형태적 등가번역을 택하여 그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례 2는 역동적·형태적 등가번역이라는 두 번역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사례는 「반야심경」내용 중, 주문에 해당하는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형태적 등가번역 방식을 현저하게 보여준다. 보통 주문표현은 의식적, 형식적 의례를 중시하는 면을 갖고 있다. 그러한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12) 동국대 정각원에서 출판한 『법요집』원문에는 “菩提薩埵 依般若波羅密多 故心無罣碍 無罣碍故(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애고)”처럼 “菩提薩埵(보리살타)”표현이 이전 문장과 구분하여 첫 문장의 어구로 시작된다. 하지만 위 사례에 제시한 “以無所得故(이무소득고)” 표현은 번역문맥에 맞게 재조정하여 첫 문장에 제시한 것으로 원문과 약간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

사례 3

ST: 故設般若波羅蜜多呪 卽 說呪曰「揭諦 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薩娑婆訶」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 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TT: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말하노니 주문은 곧 이러하니라.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동국대 정각원 24)

위 사례는 반야지혜의 완성으로 열반경지에 이르는 진언(眞言)을 나타내는 주문을 나타낸다. 위 사례 내용 중, 주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가세 가세 피안의 세계로 가세. 피안의 세계에 완전히 도달하세. 깨달음이
 여! 행복이 있으라!

(정성본 170)

위 번역은 원문에 나타난 주문내용의 기능이 상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오히려 위 번역은 원문과 동떨어진 어감(語感)을 나타내며, 주문을 나타내는 의미가 사라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운율적 리듬을 가진 표현들은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형태적, 기능적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번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형태적 등가번역은 원문이 가진 구조나 언어자질을 반영시켜 준다. 그러므로 사례 3과 같은 번역은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그 형식과 기능을 살리는 형태적 등가번역을 나타낸다. 사례 2의 번역은 원문의 음을 그대로 살려 실제 원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원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방식을 그대로 전달한 사례 2의 번역은 형태적 등가번역에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례 1은 원문의 함축적 의미들을 독자들을 위해 가독성을 높이고 원문과 유사한 의미효과를 발생시킨 역동적 등가번역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2는 원문에 나타난 표현들 중, 일부는 역동적 등가번역으로 전달하였고, 일부는 형태적 등가번역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사례 3은 주문과 같이 원문의 음운적 리듬을 살리면서 언어형식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적 등가번역을 보여준다. 이처럼 불경번역은 다른 역서(譯書)들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역동적·형태적 등가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 등가번역 접근법은 텍스트

트 기능적, 의미적 내용과 연관 있으며, 문맥상황에 따라 형태적·역동적 등가번역을 추구해야 한다.

5. 결론

불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 대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번역학 차원에서 불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번역해야 할지 의문시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불경번역을 접근하는데 나이다(67)의 역동적·형태적 등가번역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종교서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불경번역은 성경번역처럼 역동적 등가번역 접근법을 통해 각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반영하는 번역을 일구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형태적·역동적 등가번역을 합친 통합적 접근법에 의한 불경번역을 접근 가능케 해주었다. 통합적 접근법으로 「반야심경」 자료를 살펴본 결과, 주문과 같은 표현은 그 원문의 리듬과 문체를 유지하는 형태적 등가 접근법이 적절하였다. 다시 말해, 출발어의 언어구조나 자질을 그대로 유지한 번역은 독자들에게도 원문의미를 살리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반야심경」에 있는 다른 표현들은 주로 한자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가독성을 높이는 역동적 등가번역도 필요하였다. 특히, 사례 1에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조건오온개공 도일체고액)”과 같은 표현은 포괄적,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역동적 등가번역은 출발어 의미와 유사한 의미 효과를 도착어 텍스트에 발생하는 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불경번역은 특정한 하나의 번역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전후관계(상황)에 의해 형태적·역동적 등가번역을 시도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경은 ‘오실본삼불역’이라 하여 번역을 금지시켜 왔다. 사실, 종교서는 신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로 본다. 그러므로 불경은 원문을 문자 그대로 형식과 문체에 얽매어 가며 전달하려는 의도보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적 등가번역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도훈. 2004. 「번역에 있어서 등가성 및 등가성 구현방법」. 『외대논집』. 29: 부산외국어 대학교.
- 김효중. 2000. 「번역등가의 개념과 유형설정」. 『번역학 연구』, 1:2, 한국번역학회.
- 동국대학교 정각원. 2001. 『법요집』. 서울: 동국대학교.
- 박경훈. 1988. 「불교경전번역의 이론과 실제」. 『종교연구』, 4:1, 한국종교학회.
- 박윤철. 2009. 「반야심경」번역의 고찰. 『동서비교문학저널』, 20,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 서윤길. 2004. 「금강경 ‘우리말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동국대 불교문화 대학원.
- 안형관 · 진영숙. 2004. 「불경 번역에 있어서 주요 용어의 음역에 관한 고찰」. 『동서비교문학저널』, 7:1,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 원영희. 2000. 「한글성경 번역상의 변화연구」. 『번역학 연구』, 1:2, 한국번역학회.
- 정성본. 2007. 『반야심경』. 서울: 한국선문화연구원.
- 정승석. 1989. 「원전해석학의 새로운 조명」. 『동국사상』: 동국대 불교대학.
- 정연일. 1999. 「번역에 있어서 효과의 등가성과 번역손실」. 『논문집』, 3:1, 한국외대 통번역학 연구소.
- 정연일 · 남원준. 2006.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외대출판부.
- 조현춘. 2000. 「불경 없는 불교학-반야심경 재해석-(1)」. 『동서정신과학』, 3:1, 한국동서정신과학회.
- Bernwell, Katharine. 1986. *Bible Translation: An introductory Course. Translation Principles*. Dallas: SIL.
- Gutt, Ernst-August.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Manchester, U.K. St: Jerome P.
- Kirk, Peter. Holy Communicative? Current Approaches to Bible Translation Worldwide. *Translation and Religion*. Lynne Long(ed.).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 Larson, M. L. 1984. *Meaning-based Translation*. Lanham, MD: America UP.
- Lyon, John. 1969.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P.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Nida, Eugen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Nida, E. A. & Taber C. 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United Bible Societies and Brill.
- Wilt, T. 1998. Review of Lawrence Venuti's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49.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Methods of Buddhist Scripture

Park, Yoon-cheol
(Dongguk University)

We have read a Buddhist scriptures and sought for better wisdom from it for a long time. And it wa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hich have implicit and comprehensive meanings. In its Korean version, there were some guidelines in the past, which prohibited monks or Buddhist translators from distorting source texts with a view to preserving Buddha's teachings.

Until now, the approaches on Buddhist scripture translation have mainly transferred its contents to readers with two different ways, a literal translation and a meaning-based translation. However, it could be found that Buddhist scriptures need both of the methods. This paper suggests an integrated approach, which both methods are combined in order to transfer messages naturally and readily.

In previous researches, there were Nida(1967)'s formal and dynamic equivalence approaches which were famous for Bible translation. Formal equivalence can be explained with a literal translation, and it seems that dynamic equivalence placed a value on the responses of readers and effects or results of source text. With help of these devices, this paper analyzed Prajñā-Paramitā, one of the Buddhist scriptures. As a result of analysis, we could find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re were implicit meanings in source text of the scripture, and some messages were transferred to target text naturally. It means that Prajñā-Paramitā requires dynamic equivalence method, which can rewrite the responses of phrases or expressions easily. Second, some expressions like

incantation in the end of Prajñā-Paramitā, need formal equivalence way. They involve a simple prayer which can be recited to go beyond this world for better wisdom. It means that they would rather recognize as it is than reconstruct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contents.

Therefore, this study offers an integrated approach to accept both of the expressions which require formal and dynamic equivalences. Depending on contextual situations, some methods need to transfer messages exactly. An integrated approach will be expected to solve different problems in transferring messages of source text even though Buddhist scriptures are religious books which adhere to literal translation.

▶ Key Words: Buddhist Scripture Translation, Formal Equivalence, Dynamic Equivalence, An Integrated Approach, Implicit Meaning, Literal Translation.

박윤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양교육원 조교수

lingular@hanmail.net

관심분야: 영상번역, 불교경전 번역

논문투고일: 2009년 07월 06일

심사완료일: 2009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09월 05일